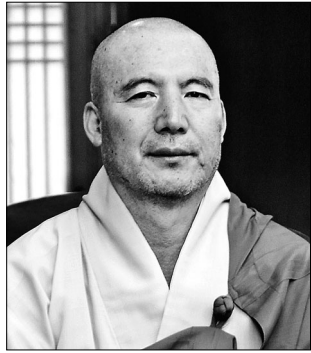


### 하동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 임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지역포교 힘써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하동 쌍계사 주지에 원정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스님은 해원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운흥사, 보리암,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임명식 후 자승 스님은 원정 스님에게 "총림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과 더불어 잘 운영해달라. 쌍계사가 많은 불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사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또 지역포교에 특히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정 스님은 "대중 화합과 함께 포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정

### 조계종 포교부장 무각·연구실장 원철 스님

3월 17일 포교원 일부 인사 단행

신임 조계종 포교부장에 무각, 포교 연구실장에 원철 스님이 임명됐다.



무각 스님 원철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7일 포교부장에 무각 스님, 포교연구실장에 원철 스님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현재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 정책 수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부장 무각 스님은 해거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고불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공생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및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개편 박차

불교광장 종삼 스님 회장 선출, 삼화도량 정심회로 변경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이 명칭변경과 신임회장 선출을 통해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정책모임인 불교광장은 3월 14일 회장에 종삼 스님(前 화엄사 주지)을 선출했다.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을 선출했다. 정념 스님은 법화회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불교광장 사무처장으로 활동해왔다.

이와 함께 삼화도량은 3월 14일 정책모임 이름을 '정심회(淸心會)'로 변경하고 초대회장에 법보 스님을 선출했다. 삼화도량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보선 스님을 후보로 추대한 원웅·백상도량·무차회가 구성한 정책모임으로 무차회가 탈퇴하며 규모가 축소됐다.

정심회 회장 법보 스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광장은 이번 종삼 스님의 대표 선출로 공식이 된 화엄회 회장에 양양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진각종, 창종 70년 기념 '한국밀교문화총람' 불사 'START'

대한불교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이 올해 창종 70년을 맞아 한국 밀교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를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밀교 장자종단으로서 역사적·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이번 편찬 불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0억 원(국고 지원 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출판 프로젝트다.

(한국밀교사 분과장), 수각 정사(한국진언문화 분과장), 현해 정사(행정·전산 지원팀분과장) 등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2월 25일 한국밀교문화총람 제1차 운영위원회와 3월 4일 한국밀교문화총람 제1차 분과장 회

분류된 밀교문헌의 목록과 결집 및 이와 관련된 해제출판을 전담한다. 한국 밀교사 분과는 한국에 전래된 밀교의 과정과 가치 연구, 인간중심의 신행형성과정 연구, 통합과 통리의 밀교사 회적 통합과 소통 문화를 연구 정리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총괄팀장 범경 정사는 "이번 편찬 사업은 1700년 한국불교문화사 정립되지 않던 밀교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고 밀교의 현재 긍정적 가치를 미래지향적 삶의 문화로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합과 민족화해, 상생 그리고 발전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정립하고 공유하는 문화 확장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고려했다.

한국 밀교의 현세 긍정적 가치 한눈에 조망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투입

의를 잇달아 열고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월 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별 인력 점검과 총람사업단 발단발단 및 발표회 계획 등을, 3월 분과장 회의서는 분과별 사업과 총람사업 전개 방향, 밀교문화통합목록 작업 현황, 밀교 문화총람사업 진행 등을 논의했다. 한국밀교문화정보 분과는 불교경전으로

다. 한국진언문화 분과에서는 다양한 진언집 유적, 유물 등 진언문화의 수집, 발굴과 기록·기도서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가치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방법은 분과별로 자료조사와 영상, 사진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고사 계획으로 진행되는 한편 통합목록을 작성한 후 3~5월 까지 매달 성과물을 제시하고, 주제별

한편 이번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 불사에서는 △한국 밀교연구 토대 구축 △한국 밀교의 문화재와 밀교저술을 통한 동아시아 위상 정립 △우리 사회의 통일을 위한 이념 활용 △새로 발굴되는 밀교문화를 전통문화로 발전시키는 원천 마련 및 활용 △밀교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 활용 등을 추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근현대 생활상 알리는 상량 유물 발견

이천 영월암 대웅전 해체 중 상량품 214점 나와

상량문·화폐·비녀 등 부장품 다양 중건 시기 확인... "건축사적 자료"



이천 영월암은 "3월 10일 대웅전 해체보수공사 중 상량문과 비녀, 화폐 등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상량유물 214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

근현대 격변기의 생활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다수의 상량 유물이 발견됐다.

이천 설봉산 영월암(주지 보문)은 "지난 3월 10일 대웅전 보수를 위한 해체공사 중 '설봉산보림사중건상량문(雪峰山保林寺重建上樑文)'이라는 제목의 상량문과 화폐, 은비녀, 은장도 등 상량 유물이 발견됐다"고 3월 16일 밝혔다.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1950년 음력 4월 초파일 중건 당시 불안한 것으로 당시 도련수 임배근 등이 참여했다. 1907년 이천총화사건에 의해 영월암이 전소된 사실과, 현재의 영월암이 아닌 보림사(保林寺)라는 이름으로 사찰의 명칭이 변경됐던 것도 확인됐다.

그간 영월암 대웅전은 1953년 11월 김해옹(金海翁) 스님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견된 상

량문으로 6.25 전쟁 직전인 1950년으로 중건시기가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

이와 함께 화폐는 상평통보, 건륭통보, 1880년부터 1941년의 일본화폐 등 수십 점이 발견됐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조선, 청, 일본 화폐 모두가 통용됐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초이다.

이번 발견에 대해 영월암 관계자는 "영월암 대웅전은 일제시대에 망실 위기에 있었던 이천향교 풍영루 목재를 전용(轉用)하여 다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영월암 대웅전의 전신(前身)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천시 관영건축물의 새로운 면모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월암은 현재 이천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이전의 유서 깊은 명찰이며, 대웅전 뒤편으로는 바위를 깎아 만든 보물 제822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이 전해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수록방생 대법회

4월 3일 충주 월악나루터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법정 스님)가 4월 3일 오전 11시 충주시 월악나루터에서 '제1회 수록고현천도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3월 4일 태고종 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수록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 전국비구니회 회장 법정 스님은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확고한 위상과 종단의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수록천도 방생 대법회를, 하반기에는 수련법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비구니회장 윤정 스님은 치사를 통해 "종단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때 일수록 스님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종단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구니회 측은 전국비구니회가 태고종 창종 이후 처음으로 수록고현천도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종단안정과 대화합을 발원하는 의미에서 기획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지랑(資糧)입니다! 선재등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을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 3차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 ◆ 일 정 : 2016년 4월 2일(토) ~ 3일(일)
- ◆ 장 소 : 경북 봉화 영축산 조계종 축서사
- ◆ 소참법문 : 조실 무여스님
- ◆ 출발장소 :

- ①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 앞
- ② 4월 2일 오후 1시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주차빌딩 앞

-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대표도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一如)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세가 선지식뿐만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서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2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계몽산 학림사 오동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양평 선원사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108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미타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